

## 광주·전남 온라인 매장 이용 급증



KT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새로운 비대면·비접촉식 쇼핑을 통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라이브 전통시장 쇼핑'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전통시장에서 방송인 김영철씨가 상품을 소개하는 모습. /KT 제공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매장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 소비 지형도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고객 데이터 분석 기업인 텀헵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19개국 7천677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소비자 구매행동 변화' 보고서를 보면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높았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신한카드·하나카드사 협조를 얻어 이들 회사 카드 사용자들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 광주지역 카드 이용자들의 온라인 매장 사용액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1.4%나 증가했다.

전남지역 카드 사용자들의 온라인 매장 사용액도 지난해 같은 달 보다 무려 68.4%나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의 본격화로

대면 쇼핑보다는 비대면 쇼핑 문화가 늘어난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 패턴에 대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비대면·비접촉 거래를 선호한 데다 온라인 매장의 취급 품목도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온라인 매장 매출

이용률 증가 폭은 54%로, 중국(61%)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식료품과 생활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 평균 5.1회 쇼핑을 한다고 기록했다.

중국과 한국에 이어 온라인쇼핑 이용률이 높은 나라는 태국(46%), 브라질(42%), 말레이시아(39%) 순이었다. 미국(23%), 독일(20%), 영국(19%)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쇼핑 이용률을 보였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가장 우려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한국 소비자의 45%는 코로나19가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이는 브라질(49%), 스페인(48%), 태국(48%), 홍콩(46%)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답한 '우려그룹'은 코로나19를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감염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쇼핑 시 감염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로 구성됐다.

한국 소비자들 중 우려그룹에 속한 응답자의 61%는 특히 '쇼핑 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고 답했다.

최이슬 기자

### 코로나19 예방 차원 비대면·비접촉식 쇼핑 선호

### 발달된 배달시스템도 한몫...사재기 현상은 없어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광주는 6.9%, 전남은 8.4%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 한 달간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광주는 16.6%, 전남은 10.6% 하락했다.

국제조사기관 텀헵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온라인쇼핑

##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

혁신추진위,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제10차 시정혁신 권고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확정했다.

광주시의 연령대별 인구구조를 보면 10세 이전 인구가 40대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초저출산시대로 진입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와 순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것으로, 2018년 기준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0.97명)보다 낮은 0.92명이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생애주기별, 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강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사회돌봄체계 마련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4개 기본방향에 따라 29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먼저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연령, 성별, 소득수준, 인구이동 등 지역 인구구조를 정확히 진단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생애주기별, 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촉

진은 경제적 독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화된 청년 고용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나 문화·예술 등 지원에 있어 청년 지원정책 할당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거주지나 근무지(일터)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탄력(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 및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혁신추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경제 충격극복을 넘어 변화의 기회를 모색하는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현행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 및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확대·개편한 '가칭'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최영범 기자

## 전남 친환경농산물 배송 사업 '눈에 띄네'

학생 23만여명 가정에 무상공급...전국 시·도 벤치마킹

전남도와 도교육청과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시범 모델이 돼 전북과 경남에 이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급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급 협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의 사례가 시범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전남의 코로나19 극복 상생프로젝트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 지원 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도 시범 사례로 2차례 거론됐으며,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확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 농식품부 장관 재직 경험에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아이디어로 기획됐으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생산농가, 학교급식 공급업체, 배송업체 모두 혜택을 받은 1석 5조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부모 맘 카페에는 '크리스마스에 산타할아버지께 선물 받은 기분', '누구 생각인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 '예산은 이렇게 써야 와 같은 호응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표혜덕 기자

근로자의 날·어린이날 등의 휴무로 다음호 7일자 발행합니다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해봅시다!

**COVID-19**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기움에는  
의회  
**고흥군의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